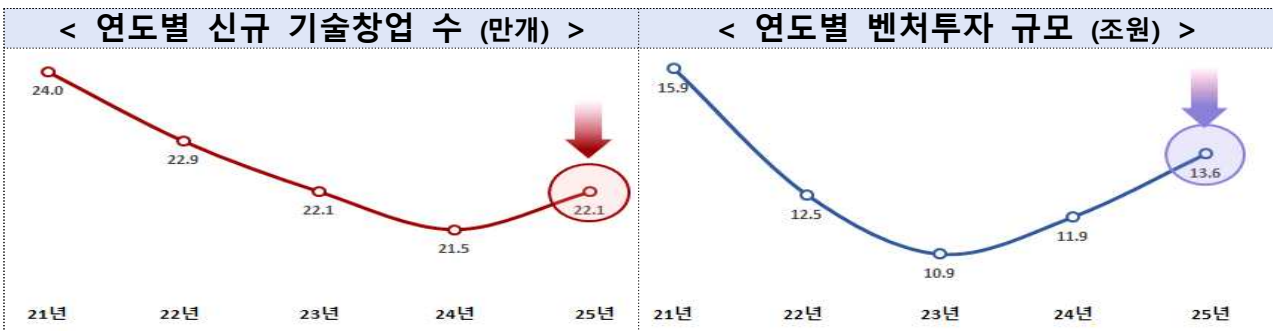

국가창업시대를 열어가는 첫 발걸음,
「모두의 창업 프로젝트」 추진 계획

2026. 03.

관 계 부 처 합 동

I 추진 배경

- **(국가창업시대 전환)** 대·중소기업, 지역 간 양극화된 K-자형 성장 구조를 개선하고, 국가 잠재성장률을 견인할 미래 성장동력 필요
 - 이에 누구나 혁신에 도전할 수 있고, 그 성과가 사회·지역 전반으로 파급되는 ‘창업’이 국가 경제의 중추가 되는 ‘국가창업시대’ 선언
 - * (V 말씀) 한국도 벤처 30년의 역사를 발판 삼아 **국가창업시대**로 대전환하려고 합니다.
- **(창업생태계 현황)** 특히 최근 창업생태계 전반에 활력의 신호가 확산되며, 국가창업시대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의 기반 마련
 - * (기술창업) '25년 22.1만개, 반등 성공 (벤처투자) '25년 13.6조원, 역대 두 번째 정점



- **(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)** 이에 1. 30.(금) ‘국가창업시대 전략회의’를 개최하며 현장 창업가·전문가와 함께 스타트업 열풍 조성방향 논의
 - 그 핵심 과제로 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를 발표하고, 이후 다양한 창업 기관과 선배 창업가를 만나며 현장의 목소리 청취 및 프로젝트 구체화
 - * ‘모두의 창업’ 관련 창업기관 간담회(2.6) 및 선배 창업가 간담회(2.12) 개최



⇒ **전 국민**이 혁신에 자유롭게 도전하는 **창업인재 육성 플랫폼**,
 도전·보육·경연이 결합된 **‘모두의 창업 프로젝트’** 본격 개시

- ◆ 새로운 업과 시장을 창출하는 혁신기업을 탄생시키기 위해, 창업 정책을 국가가 창업 인재에 투자하는 방식으로 재설계



1. [성장경로] 혁신 성장을 뒷받침하는 체계적인 성장경로 구축

- **(폭넓은 도전)** 예비창업가부터 새로운 혁신을 시도하는 재창업가까지 참여 범위를 폭넓게 확대하여, 5천 명 규모의 혁신 창업가 발굴

- 창업가의 도전 분야(기술·로컬)에 따른 단계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, 지역 균형성장을 고려하여 비수도권 창업가를 70% 이상* 선발

* (기술) 수도권 30%, 비수도권 70% / (로컬) 수도권 10%, 비수도권 90%

구분	단계별 보육 프로그램(안)			
기술	공모·보육 (4천명)	지역오디션 (5백명)	권역오디션 (2백명)	대국민 경진대회 (1백명)
	창업활동자금 (2백만원)	사업화자금 (최대1천만원)	사업화자금 (최대1천만원)	상금+투자(10억원 이상)
로컬	공모·보육 (1천명)	권역오디션 (6백명)		대국민 경진대회 (13명)
	창업활동자금 (2백만원)	사업화자금(최대3천만원)		우승자 상금(최대1억원)

- **(신속한 혁신)** 아이디어를 성공적 창업으로 연결하는 혁신 메커니즘 도입

- **(AI 솔루션)** 국내 AI 스타트업이 개발한 범용 AI 솔루션 제공
→ 창업가 아이디어 고도화 및 AI스타트업 정부가 첫 구매자 역할

* AI 솔루션 공급기업 공모 → 메뉴판 제작 및 솔루션 활용 지원(기업당 최대 2백만원)

- **(규제 스크리닝)** 창업가 대상 선제적 규제 애로 점검·컨설팅 지원

* ①규제 저축 여부 검토 → ②전문가 법률자문·유권해석 → ③비즈니스 모델 수정

- **(IP)** 창업의 기반이 되는 기술·아이디어 등 IP 컨설팅 지원(지재처)

- **(과감한 투자)** 최종 선발된 창업 루키에게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500억 규모의 '가칭'창업열풍펀드' 조성

- 펀드 운용사가 오디션 평가위원으로 참여 → 경연 과정의 투자심사 유도

- **(전국적 경연)** '지역 → 권역 → 대국민'으로 이어지는 창업 오디션을 통해 창업가의 혁신 역량을 검증하고, 창업 열기를 전국으로 확산

- 최종 우승자는 10억원 이상 파격 지원 및 후속 성장 패키지 연계

* 글로벌 진출(해외전시회), 후속 사업화(최대 1억원), 전용펀드 투자 등

2. [생태계] 한국을 대표하는 혁신 주자들이 참여하는 창업 플랫폼 구축

- **(보육 기관)** 전국 지역별로 우수한 창업보육 역량(전담 멘토, 창업 공간, 보육·투자 경력 등)을 갖춘 100여 곳 대표 창업기관이 운영사로 참여
 - 보육 기관이 직접 선발한 창업가를 프로젝트 전 기간에 걸쳐 책임지고 육성하며, 단계별 진출 성과에 따라 기관별 인센티브 제공

⇒ 창업가와 함께 보육 기관 전반의 역량을 향상할 기회 제공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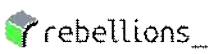
< 지역별 대표 보육기관 >

수도권			충청	영남	호남
					

- **(선배 창업가)** 초기 창업가부터 창업생태계를 대표하는 스타 창업가까지 500여 명 선배 창업가들이 전담 멘토단으로 동참
 - 창업가의 성장 단계에 따라 적합한 희망 멘토를 1:1로 매칭하고, 온라인 플랫폼을 통한 상시 멘토링 병행

⇒ 선배 창업가가 후배의 성장을 함께 끌어주는 상생형 생태계 구축

< 대표 스타 창업가 >

토스	비누랩스	뤼튼	리벨리온	노타AI
				
이승건 대표	김한이 대표	이세영 대표	박성현 대표	채명수 대표

- **(플랫폼)** 모두의 창업 신청 창구를 넘어, 창업가·기관·멘토단이 자유롭게 교류하는 ‘모두의 플랫폼’ 구축 (www.modoo.or.kr)
 - 아이디어 한 줄 입력을 시작으로 희망 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간편 신청하고, ‘창업 프로필’을 등록하며 도전 성과를 함께 공유

⇒ 아이디어를 알리며, 우수한 기관과 멘토를 만날 수 있는 장 조성

3. [재도전] 도전과 실패의 경험이 경력으로 축적되는 생태계 조성

- ☐ **(도전 경력증명서)** 창업가별 '모두의 창업' 활동 이력을 데이터로 축적하여 도전 경력증명서 발행 → 향후 창업지원 사업 참여 우대
- ☐ **(재도전 기회)** 모두의 창업 프로젝트에 참여한 창업가들은 '제2차 모두의 창업' 신청 시 우대하여 재도전 기회 제공
- ☐ **(도전생태계 연결)** '모두의 아이디어(지재처)', 'AI 경진대회(과기부)' 등 범부처 차원에서 발굴한 혁신 인재를 '모두의 창업'에 연계

< '모두의 창업 프로젝트' - 부처별 경진대회 연계 체계(안) >

◆ '모두의 창업(중기부)' 및 'AI 경진대회(과기부)' 간 지원체계 연계

* (모두의 창업) 선배창업자 멘토링, 규제 스크리닝, IR, (AI 경진대회) AI 파운데이션 멘토링 등

◆ '모두의 아이디어(지재처)', 'AI 경진대회(과기부)' 수상자는 '모두의 창업' 패스트트랙* 참여

* 모두의 창업 아이디어 공모단계 생략, 창업활동자금 지원 단계로 우선 선정

IV

향후 추진계획

◆ '모두의 창업'을 시작으로, **창업 열풍 확산**을 이끌어가기 위한 **후속 스타트업 프로젝트**를 순차적으로 발표

- ☐ **(모두의 창업)** 전국 17개 시·도*에서 '모두의 창업 발대식' 동시 개최 (3.25) → 플랫폼 오픈 및 모집공고 개시 (3.26 ~ 5.15)
* 지역별 스타 창업가가 지역 보육기관과 함께 '모두의 창업' 동시 개막 선포

구 분	3월	4월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	11월	12월
• 모집공고 및 신청·접수										
• 1라운드 평가 및 5천명 보육										
• 2라운드 평가 및 1천명 보육										
• 지역오디션 및 2백명 보육										
• 권역 오디션 및 1백명 선발										
• 대상자 선발 및 대국민 파이널 오디션										

- ☐ **(모두의 챌린지)** AX·방산·기후테크 등 산업 분야별 혁신 스타트업 육성을 위한 '모두의 챌린지' 시리즈 개최 ('26.4)
- ☐ **(창업도시)** '지역 모두의 성장'을 위한 '창업도시 조성 프로젝트' 발표('26.4) → 기술·인재 창업기업의 성장 전주기 지원